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 티비', '강성률 문학 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박지원과 박제가(1)

요즘 사람들의 소통 방식으로 SNS가 각광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한편으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으니,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문곡직하고 불쑥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이 대목에서 정조 때의 실학자인 박지원(1735~1805년)과 박제가(1750~1805년)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지원은 북학파에 속한, 서울 양반 출신의 개혁사상가였다. 이덕무, 유득공 등과 함께 북학파를 형성한 박제가는 박지원에게서 배웠으며, 저서로는『북학의』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첫 장면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박제가가 19세 때의 일이다. 그는 당대에 문장(文章, 글을 잘 짓는 사람)으로 이름 높던 박지원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워낙에 컸다. 박지원은 명문 반남 박씨의 후예로서 문단의 총아(寵兒)였던 반면, 박제가는 '서얼' 출신이었다. '서얼'(庶孼)에서 서(庶)는 양인(良人)의 첩 자손을, 얼(孼)은 천인(賤人)의 첩 자손을 가리킨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서얼 출신들은 인재 등용이나 재산 상속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더욱이 나이도 박지원이 13세나 많았다.

드디어 소년 문사(文士) 박제가가 다 쓰러져가는 박지원의 집 사립문을 두드렸다. 과연 집주인의 태도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30대의 박지원은 가슴을 풀어헤치고 망건(網巾,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털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 눌러쓰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도 쓰지 않은 채, 맨상투를 너털거리며 뛰어나왔다. 그리고 두 손을 마주 잡고 박제가를 방 안으로 맞아 들였다. 두 사람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문학과 세상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저녁 때가 되었다. 박지원은 차 끓이는 주전자에 밥을 해서는 물 담는 옹기(甕器, 질그릇과 오지그릇) 그릇에 퍼 담아 들여왔다. 두 사람은 맨바닥에서 밥을 먹고 난 뒤,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다. 손님(박제가)은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집으로 돌아갈 줄 몰랐다. 훗날, 박제가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글을 남겼다. "내가 왔다는 전갈을 들은 선생은 옷을 차려입고 나와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다. … 선생은 직접 쌀을 씻어 밥을 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업적을 남겼던가? 먼저, 박지원은 천문, 지리 등 서양의 자연과학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으며, 사회 개혁의 창도자이자 저명한 문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데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홍국영이 세도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홍국영은 박지원과 그 일파가 세상을 깔본다고 여겨 벽파(僻派,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세자를 배척한 당파. 이 벽파와 사도세자를 동정한 시파의 대립은 정조 · 순조 때까지 이어짐)로 몰아붙였다.

이에 박지원은 황해도 금천 땅에 있는 첩첩산골 연암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3년을 보내고 난 박지원은 사신을 따라 청나라로 갔다. 청나라의 문물과 중국인의 생활 및 과학기술을 관찰하고 많은 학자들과 사귀었다. 귀국한 다음 저 유명한『열하일기』를 썼는데, 특히 여기에 담긴 「호질문」과 「허생전」은 풍자문학의 극치를 이룬 작품이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알리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또 실제로 매년 겨울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사용 전 점검하기다. 보일러와 연통에 녹이 슬었거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연통 관리하기다. 그을음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연통이 지나가는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 두면 더 안전하다.

셋째, 장작 투입 후 덮개 닫기다. 장작을 넣은 뒤에는 덮개를 꼭 닫아 불티가 밖으로 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 주변 정리하기다. 종이, 목재, 비닐 같은 가연물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을 조금만 비워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재 안전하게 처리하기다. 겉보기엔 식은 것 같아도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재는 뚜껑 있는 금속통처럼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식혀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내 집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은서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음력 10월 23일)

48년생 고맙고 미안했던 빚을 청산 하자. 60년생 다른 별 인연과 사랑을 속삭여보자. 72년생 게으름이 허용된 자유를 가져보자. 84년생 괜한 신경전 피곤함만 더해진다. 96년생 새롭고 대견하다. 칭찬을 들어보자.

49년생 먼저 하는 화해 분위기를 바꿔준다. 61년생 초라했던 시작 크고 화려해진다. 73년생 오고 가기 힘들던 손님 맞이해보자. 85년생 달라 하는 부탁 점수만 깎여 진다. 97년생 용기있는 행동 약자 편에서야한다.

50년생 화통하고 정 깊은 이웃이 되어주자. 62년생 단출했던 집안에 활기가 넘쳐난다. 74년생 부고럽지 않은 차선을 가져오자. 86년생 재미있는 상황 아름다워져야한다. 98년생 이별 인사는 차갑고 냉정해야한다.

51년생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아보자. 63년생 신명 나는 장단 춤사위가 절로 난다. 75년생 대책 없는 자신감 약으로 못 고친다. 87년생 엇나가는 기대 찬바람만 불어온다. 99년생 실패도 과정이다. 겸허히 맞서보자.

52년생 차려진 밥상에 주인행세 해보자. 64년생 숨기고 싶던 비밀 자랑이 되어 간다. 76년생 여럿이 함께 울타리가 단단해진다. 88년생 아쉬웠던 부분 넘치고 채워진다. 00년생 계획에 없는 소비 낭비가 돼야 한다.

53년생 밀고 당기는 거래 끈기로 해야한다. 65년생 절정에 이른 감성애정 표현해보자. 77년생 뿌듯한 성취감 강이 바다로 간다. 89년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서두르자. 01년생 의리와 상관없이 뒤에서 지켜보자.

54년생 눈으로 보여져도 의심을 가져 보자. 66년생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를 찾아가자. 78년생 잠시 오는 고비 슬기롭게 헤쳐가자. 90년생 축하자리에서 이름이 알려진다. 02년생 힘들고 궂은일 보람으로 해야한다.

55년생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겨 가자. 67년생 조용하고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자. 79년생 얼마나 좋은지 그림으로 그려보자. 91년생 볼품은 없어도 진짜를 가져오자. 03년생 훌륭한 마무리 칭찬은 덤으로 온다.

56년생 겨울향기 짙은 나들이를 해보자. 68년생 뭐라도 보탤까 재촉 걸음 걸어보자. 80년생 분명한 선 긋기 흑백을 가려내자. 92년생 생각 못한 도움이 급한 불을 꺼준다. 04년생 이유 있는 반대 원망을 들어보자.

57년생 배부른 고민 저울질을 더해보자. 59년생 쉽게 하는 포기 꼬리가 달려진다. 81년생 과분한 선물을 허리 숙여 받아 내자. 93년생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해보자. 03년생 모르는 것 투성이 책에서 알아내자.

58년생 아차 하는 실언 금전 손실이 온다. 70년생 쉬어가는 여유 게으름을 피워보자. 82년생 풍성한 결실 부자 곳간이 되어 간다. 94년생 주저하는 사이 기회는 달아난다. 06년생 정해진 목표 지치지 않고 가야한다.

47년생 당연한 결과로 콧대를 높여보자. 59년생 신선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려보자. 71년생 못 오를 나무다 기억에서 지워내자. 83년생 서열 무시하고 앞으로 나서보자. 95년생 약속을 지키는 멋쟁이가 되어보자.

사 설

현대의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인류는 한 가족이다. 오늘날처럼 세계가 일일생활권 시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미 단일민족주의나 국가라는 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 만약 그것을 주장하는 국가나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시대의 경찰국가라 할 정도로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미국의 경우, 세계인종의 전시장이라 할 정도로 각종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물론 각종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모여 있다.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미국을 제외하고는 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은 있어도 민족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계속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마냥 부러워만 했던 대한민국.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도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성장의 흐름을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 등으로 들어왔다. 1990년 전후로는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등으로 유입되었다. 그 후 2000년대에는 동남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결혼이민 등등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코리언 드림을 따라 동남아의 수많은 노동자들 또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열려있지 않은 것 같다. 일명 텃세를 부리며 무시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선호하면서도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때문에 결혼을 매개로 한 이주민 여성들의 경우에서도 동남아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이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국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동남아에서 온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코시안'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지극히 배타적인 행위다. 과거의 우리들을 생각해보라. 못살던 시절 우리 국민들도 하와이로, 중동으로, 독일과 스페인 등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났던 시절을 말이다. 그때의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꼭 생계만을 위해 각자가 지목한 국가로 떠나는 것도 아니다. 삶의 취향에 따라 떠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오늘날의 세계는 나날이 좁아져 가고 있다.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다. 때문에 모두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듯이 국내에 유입되어온 외국인들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단 말이다. 만약 우리가 국내 유입외국인들을 박절하게 대하면 우리 국민들 역시 그들 국가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망가뜨리는 독소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외국인 수가 계속 늘어가는 작금의 시대를 보다 더 밝고 고운 사회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를 구가해야 할 것이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 · 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